

방송통신위성 '핫버드4' 발사성공

유럽의 아리안스페이스는 발사체인 아리안로켓을 통해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 38분(한국시각) 유럽 통신위성기구(EUTELSAT)의 방송통신위성 「핫버드 4」를 남미 기아나 유럽발사기지에서 발사, 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핫버드 4」는 유럽 위성기구인 유텔셋의 통신위성으로 적도 상공에 약 3만6천km 궤도에서 12개월 안으로 유럽의 6천5백만 가구에 TV와 라디오 전파 외에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리안스페이스는 이번 아리안로켓 발사가 1백6번째이며 4월 20일에는 1백7번째로 프랑스 우주국 CNES의 「스팟 4」 지구탐사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 최대 원거리통신위성 공개

유럽우주국(ESA)이 지금까지 개발한 것 중 가장 큰 통신위성인 Artemis(Advanced relay and technology mission)가 최근 로마에서 공개됐다.

다기능 실험위성인 Artemis는 지구 상공 3만6천km의 정지궤도에서 광범위한 원거리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위성은 저비용의 이동통신과 유럽 항해체제를 위한 통신서비스는 물론 러시아의 우랄산맥과 지중해까지 포용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위성 대 위성 직접교신에 이용된다.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유럽 컨소시엄에 의해 개발된 중량 3.1톤의 이 위성은 ESA와 일본우주국(NASDA)간의 협력 협정에 따라 오는 '99년이나 2000년에 일본 남부 다네가시마 기지에서 일본의 H2A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영 C&W - 텔레콤이탈리아 제휴

영국의 통신사업자인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C&W)와 이탈리아의 통신사업자인 텔레콤이탈리아가 국제통신에서 제휴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경제신

문」이 최근 보도했다.

아시아지역에서 폭넓게 사업을 추진중인 C&W와 남미 등지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텔레콤이탈리아의 제휴는 국제통신에서 브리티시텔레콤(BT)-도이치텔레콤-프랑스텔레콤 연합에 대항하는 새 연합의 등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세계 통신업계의 합종연횡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우선 두 회사는 텔레콤이탈리아가 C&W의 북미 사업체와 카리브해 지역 지주회사에 각각 5%와 20%까지 출자하는 방안을 통해 두 지역 사업에서 협력하게 된다.

특히 C&W는 프랑스 휴대전화사업자인 브이그텔레콤의 주식 20%도 텔레콤이탈리아에 매각할 예정인데 일련의 매각을 통해 총 2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얻을 계획이다.

또 이들 두 회사는 다국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통신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합작사 설립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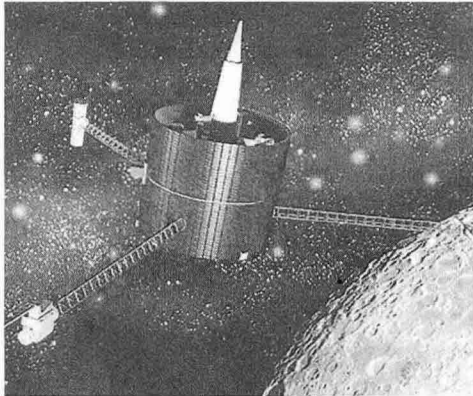
“달에 물 있다” - NASA 발표

달에서 물이 발견됐다. 미(美) 연방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3월 5일(현지시각) 우주탐사선 「루나 프로스펙터」의 전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달의 남극과 북극 표면에서 얼음 형태의 물을 상당량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11일부터 달 상공을 돌고 있는 탐사선 루나 프로스펙터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 앨런 바인더 박사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마운틴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달의 남극과 북극 일대의 크레이터(넓게 파인 곳) 수만 km에 걸쳐 흙과 얼음이 섞여 있다』며 『달에 물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얼음을 녹일 경우, 물의 양은 1천1백만~3억3천만에 달할 것』이라며 『얼음을 액체로 전환시켜 로켓 연료용 산소와 수소 및 호흡용 산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ASA측

은 『인류가 달 기지 건설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라며 『장차 달을 중간기지로 화성 등 다른 행성으로의 탐사여행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우주탐사선 「루나 프로스펙터」의 상상도

美 4대 방송사 - 디지털TV 방식 확정

ABC·CBS·NBC·폭스TV 등 미국 4대 네트워크의 디지털 지상파 TV방송(DTV) 방식이 거의 확정됐다고 일본 「닛케이BP」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다른 방송사보다 방식결정에 신중을 보여 온 NBC는 지난 4월 6일 개최된 라스베이거스의 방송기기전 「NAB98」에서 DTV의 화면주사 방식으로 비월(飛越)주사 방식에 의한 「1080i(유효주사선수 1천80개, 60프레임/초)」와 순차(順次)주사 방식에 의한 「480p(유효주사선수 4백80개, 30프레임/초)」 등 두 가지를 채택한다고 정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ABC와 CBS는 지난 4월 2일 각각 화면 포맷으로 「720p(유효주사선수 7백20개, 60프레임/초)」와 「1080i」를, 폭스TV는 지난 4월 5일 「480p」를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NBC의 이번 발표로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미국 4대 네트워크의 DTV 방송방식은 사실상 모두 확정됐다.

한편 NBC는 이날 발표에서 「1080i」는 고선명 TV(HDTV) 규격으로 규정해 프라임타임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480p」는 프라임타임 이외 시간대에 사

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HDTV용 방송기기는 올림픽 중계기기 등에서 제휴하고 있는 소니와 계속 협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힐튼 “달에 호텔 건설”

세계적인 호텔 체인사업체인 힐튼 인터내셔널사(社)가 달에 객실 5천개 규모의 호텔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선데이 타임즈지(紙)는 지난 4월 19일 힐튼사가 최근 영국 건축가인 피터 인스톤 등에게 달에 건설하기 위한 높이 3백25m 규모의 돔형 호텔 설계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힐튼측이 「루너 힐튼」으로 명명한 이 호텔 건립 계획에 착수한 것은 지난 3월 달에서 물이 발견되면 서부터이다. 힐튼사는 이 물을 끌어들여 식수(食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바다」와 해변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는 두 개의 거대한 태양열 전지판으로 해결할 방침이며, 호텔 내부에 식당과 의료센터, 교회와 함께 학교까지 갖추기로 했다. 그러나 달 호텔 건립 구상이 힐튼만의 아이디어는 아니다. 이미 일본의 시미즈(清水)건설, 오바야시구미(大林組), 니시마쓰(西松)그룹 등 3개 건설회사들이 각각 호텔이나 리조트 타운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日우정성, 비행선 이용 통신시스템 추진

비행선을 이용하는 정보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일본에서 추진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우정성 통신종합연구소, 과학기술청 항공우주기술연구소 등은 고도 20km의 성층권에 거대 비행선을 띄워 통신과 환경관측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시스템을 개발하는 계획을 다음달부터 5개년 예정으로 추진한다.

이들은 오는 2002년까지 총 60억엔을 들여 제작하는 길이 2백70m, 무게 30톤의 비행선 40기를 일본 상공에 띄워 PC통신, 휴대형 TV전화 등 통신용으로는 물론 오존층 관찰과 재해감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행선은 태양전지를 이용해 프로펠러를 돌리고, 전지구관측시스템(GPS)으로 위치를 파악해 한곳에 머물러 있도록 자동제어되며, 지상과는 전파로 중계되고, 비행 선간에는 적외선으로 교신한다.

日 도시바 디지털 방송사업 진출

일본 도시바가 디지털방송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지난 4월 16일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시바는 TV도쿄와 일본TV 방송망이 오는 2000년 말 각각 개시하는 방송위성(BS) 디지털방송운영업체에 10% 정도씩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동중인 차량에서나 보행 중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통신위성(CS)방송 계획을 밝히는 등 올해 들어 방송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도시바는 이로써 21세기 유망분야로 전망되는 디지털 방송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도시바는 방송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소니와 마쓰시타전기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기기를 포함해 방송을 사용한 의료 및 교육시스템의 개발 등 관련사업도 크게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일본 전자업계에서는 소니와 마쓰시타가 각각 CS디지털방송인 스카이퍼펙TV와 디렉TV에 출자해 디지털방송을 주도하고 있다.

日 소니·이토추 방송위성 출자 유보

일본 소니와 이토추상사가 오는 2000년 말 시작되는 방송위성(BS) 디지털방송으로의 본격적인 참여를 유보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BS디지털방송에 들어가게 될 막대한 투자자금의 회수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현재 대주주로 경영참여하고 있는 통신위성(CS) 디지털방송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S디지털방송을 둘러싼 일본 전자업체

및 상사들의 사업전략은 진출에 적극적인 마쓰시타 전기산업·도시바·미쓰이물산 등과 소극적인 소니·이토추 등으로 크게 갈라지게 된다.

中, 이리둠 통신위성 2기 추가 발사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적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위성발사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6일 이리둠 위성 2기를 추가로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이 제작한 2기의 통신위성을 탑재한 長征 2C 로켓은 이날 새벽 2시(한국시각)에 중국 북부 타이위안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이리둠 통신망 아·태센터 시드니 선정

새로 구축된 이리둠 위성통신 네트워크가 아시아·태평양 고객서비스 통화센터로 시드니를 선정했다고 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밥 카르 총리가 지난 4월 25일 말했다.

카르 총리는 이 센터가 미국 통신회사 스프린트를 대신해서 일본계 기업인 「프레스티지 인터내셔널」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는 콜센터 위치를 놓고 마닐라 및 싱가포르와 경쟁해 왔다.

프레스티지 인터내셔널은 시드니를 선정한 이유로 다국어룰 구사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과 탄탄한 정보인프라 및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리둠 위성통신 서비스 9월 개시

이리둠그룹은 66개 저궤도 위성망을 이용해 전세계적인 무선전화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제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미국의 모토롤라가 주도하는 세계적인 컨소시엄인 이리둠그룹은 곧 위성망 중 마지막 7개 위성이 발사될 것이며 상업서비스는 오는 9월 23일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50억달러 규모의 이리둠 통신망은 사실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나 전화가 가능한 첫 통신체제가 될 전망이다.